

#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이 자료는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91년 10월호에서 전재한 것이다. <편집자註>

林宙煥

<한국은행 경제조사과 조사역>

## I. 머리말

지난 30여년에 걸친 우리경제의 높은 성장은 주로 제조업부문의 급속한 발전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 즉 제조업은 그간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에 따라 연평균 14%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하여 GNP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약 40%에 이룸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이와 같은 제조업 성장에 힘입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꾸준히 진전되었으며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적극적인 중화학공업의 건설 및 이의 수출산업화에 성공함으로써 공업구조 및 교역구조가 크게 고도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상품 수출이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국내시장의 상당부분이 수입에 의하여 잠식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제조업생산 증가율이 GNP 성장률을 하회하는 등 제조업의 成長活力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1989~90년중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도 26%로 떨어졌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성장의 바탕을 이루고 있던 국제경쟁력 優位要素가 점차 약화되는 반면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합한 우위요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존자원이 빈약한 여건하에서 지속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제조업부문의 경쟁력 회복

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제경쟁력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日本 및 臺灣과 비교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제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국제경쟁력의 결정요인

국제경쟁력은 그 포괄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우나 주로 수출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Flemming*과 *Tsiang*은 국제경쟁력을 특정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대한 수출점유율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제반여건을 총칭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출 공급여건의 변화로 특정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대한 수출물량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나라의 국제경쟁력은 높아진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특정 상품의국제경쟁력은 그 제품의 외국시장에서의 경쟁력(수출경쟁력) 뿐만아니라 국내시장에서의 외국상품과의 경쟁력(수입경쟁력 또는 수입저항력)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본고에서도 이와 같은 광의의 국제경쟁력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가격경쟁력 요소와 비가격경쟁력 요소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가격경쟁력은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생산원가나 판매가격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같은 제품과 비교하여 얼마나 유리한 조건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노동 자본 원자재 등 각종 생산요소의 비용과 환율의 변동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노동비용은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각국의 노동력 수급사정, 노동의 질과 숙련도, 일반 물가수준 등의 차이에 따라 임금 및 노동생산성이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자본비용은 차입자본에 대한 이자율, 자기자본에 대한 배당률, 자본재의 소모율, 투자자본에 대한 조세 및 보조금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원자재비용은 자원의 부존상태, 산업구조, 생산기술 및 원자재 절감 노력 등에 따라 변동된다. 끝으로 환율변동은 국제통화표시에 의한 자국의 제품과 타국의 동종제품간의 상대가격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비가격경쟁력은 기술수준, 상품의 공급능력, 수요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제품의 聲價, 품질, 디자인, 애프터서비스, 판매조건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개발은 생산요소의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품질개선 신제품개발 등을 통하여 비가격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특정상품에 대하여 세계시장에서 초과수요가 존재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능력이 있는 나라는 세계시장에 대한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의 소득증가 및 이에

따른 기호변화 등에 대하여 즉시 적응할 수 있는 전환능력이 있다면 역시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유지 또는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聲價, 품질 및 디자인, 애프터서비스 등도 세계교역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제경쟁력 결정에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가격 및 비가격면에서의 국제경쟁력 결정요인 외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설비투자의 질과 양, 자본스톡과 老朽度 등도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Ⅲ.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한 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앞서 본 다양한 가격 및 비가격요소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되나 현실적으로 비가격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국제경쟁력 분석은 단위노동비용 등 개별생산요소의 효율성 비교, 수출가격 국내판매가격 등 가격지표의 비교에 의한 가격경쟁력분석,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출 중심의 成果分析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 가운데 생산요소의 효율성 비교에 자주 이용되는 단위노동비용은 자료의 수집과 측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이의 변화가 투입노동의 생산효율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또는 생산요소간의 대체에 기인한 것인지 뚜렷하지 않음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중에서 노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위노동비용만

〈표-1〉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 추이(연평균 상승률)

(단위 : %)

		1971~90	71~80	71~75	76~80	81~85	86~88	89~90
韓 國	명 목 임 금	20.4	26.8	23.4	30.3	11.5	14.0	22.0
	노동생산성	7.6	7.1	8.0	6.2	6.6	9.8	9.5
	단위노동비용	11.9	18.4	14.3	22.7	4.6	3.8	11.4
日 本	명 목 임 금	8.3	13.2	18.4	8.2	4.3	2.7	3.3
	노동생산성	5.0	6.0	4.6	7.5	3.9	4.3	3.6
	단위노동비용	3.1	6.7	13.2	0.6	0.4	-1.6	-0.3
臺 灣	명 목 임 금	13.6	19.1	19.9	18.6	9.6	10.3	7.8
	노동생산성	5.8	6.7	6.4	6.8	2.2	8.2	7.7
	단위노동비용	7.4	11.6	12.6	11.0	7.2	2.0	0.0

으로 각국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수출성과분석에 있어서 가장 빈번히 이용되는 지표는 顯示比較優位指數(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로서 이 지수는 자국내의 상대적인 비교우위품목과 비교우위수준의 변화추이를 나타내는데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지수 자체로는 국가간 특정상품의 절대적인 비교우위 평가가 불가능하고 또한 수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산업의 전반적인 국제경쟁력 수준을 나타내지는 못한다는 취약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와 원자재 등 제품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생산요소비용의 변화와 국제시장에서의 상대가격에 변화를 초래하는 환율변동이 우리나라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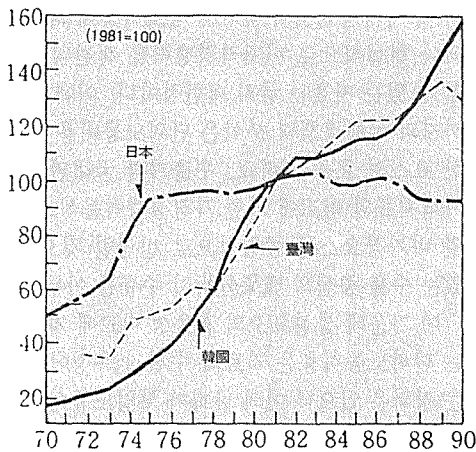
의 가격경쟁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뒤 수출경쟁력과 수입경쟁력을 모두 포괄하는 성과분석을 통하여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단위생산비용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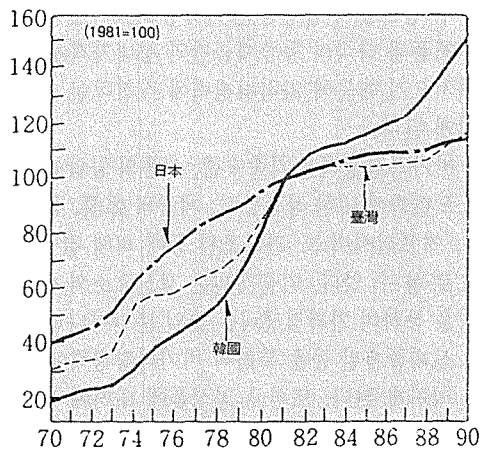
### 가. 노동비용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비용은 노동생산성을 반영한 명목임금수준 즉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s)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노동생산성이 하락 또는 명목임금이 상승하거나 명목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 증가를 상회하게 되면 단위노동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생산코스트의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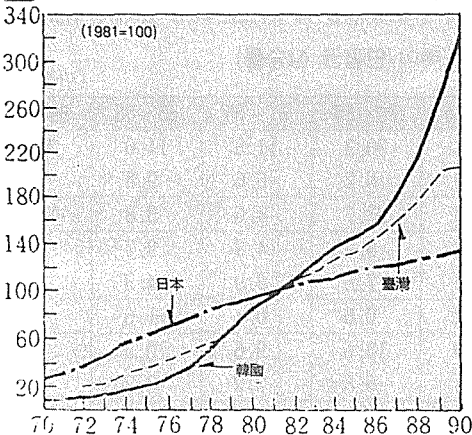
〈그림-1〉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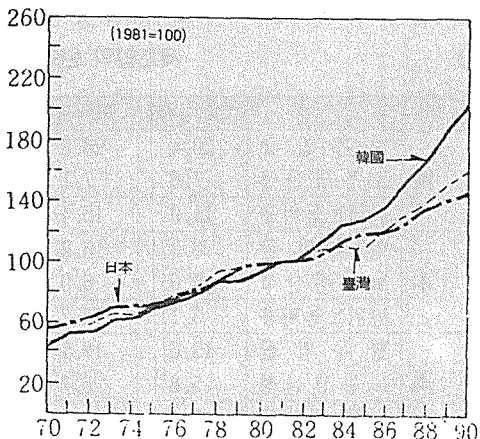
〈그림-2〉 소비자 물가 추이



〈그림-3〉 제조업의 종업원 1인당 명목임금 추이



〈그림-4〉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추이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의 단위노동비용은 1971~90년 중 노동생산성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진행에 따른 명목임금상승에 기인하여 연평균 11.9%의 상승을 나타냄으로써 경쟁상대국인 日本(3.1%), 臺灣(7.4%)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먼저 제1차 석유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1970년대 전반에는 우리나라 日本·臺灣이 모두 비용상승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따라 높은 단위 노동비용상승을 나타내었다. 그후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 이후의 대규모 중화학공업 투자와 활발한 해외건설진출에 따라 초과

〈표-2〉 제조업의 단위자본비용 추이(연평균 상승률) (단위: %)

	1971~89	71~80	71~75	76~80	81~85	86~88	·89
韓國	10.3	15.9	16.8	15.0	6.9	1.5	0.7
(자본생산국)	-1.0	-2.8	1.9	-7.4	1.7	3.1	-6.6
(자본단위당비용)	9.2	12.6	19.1	6.5	8.7	4.6	-6.0
日本	3.4	5.4	4.7	6.1	0.8	0.9	..
臺灣	2.4	10.6	14.2	8.5	-3.6	-9.0	7.2

수요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2차 석유위기를 맞음으로써 1970년대 후반 물가 및 임금 상승세가 더욱 확대되어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이 연평균 22.7%로 높아졌다. 그러나 日本은 제1차 석유위기 이후 산업구조조정 및 경제안정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1970년대 후반 이후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임금 상승세가 진정된 데다 노동생산성도 크게 향상됨으로써 단위노동비용이 뚜렷이 안정되었으며, 臺灣의 경우에도 총수요억제 금리인상 등 경제안정화 노력에 힘입어 단위노동비용 상승세가 꾸준히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198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통화긴축 재정지출억제 등 경제안정화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임금상승률이 낮아진 데 힘입어 단위노동비용이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1989년 이후에는 높은 노동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상승으로 다시 단위노동비용 상승세가 11.4%로 높아져 日本(-0.3%), 臺灣(0.0%)과의 노동비용 상승격차가 대폭 확대되었다.

나. 자본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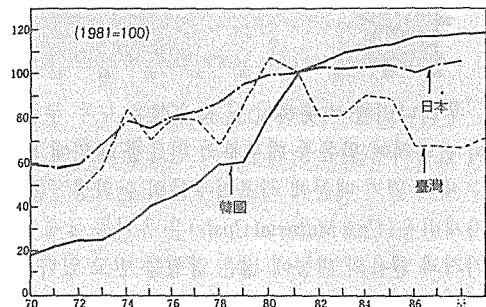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비용은 노동비용과 마찬가지로 자본생산성을 고려한 단위자본비용(Unit Capital Costs)이며 이는 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자본비용으로 총자본비용을 실질생산액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자본비용은 기업이 투자활동을 위하여 조달한 여러 형태의 자본사용

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지급 및 자기자본에 대한 배당등을 가리키지만 생산과정에 투하된 설비와 관련된 자본비용은 설비의 감가상각비와 그 설비를 위하여 조달된 자본에 지급되는 비용(이자나 배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개념에 따라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배당금 등 재화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본관련비용을 기업의 자본비용으로 파악하였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단위자본비용 측정결과를 보면 자본생산성의 저하와 자본단위당 비용의 증가로 1971~89년 중 연평균 10.3% 상승함으로써 日本(3.4%), 臺灣(2.4%)에 비해 크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적투자 등으로 자본생산성이 하락한

〈그림-5〉 제조업의 단위자본비용 추이



데다 자본단위당 비용도 크게 증가하여 단위자본비용이 연평균 15.9%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臺灣도 1970년대 전반 경기침체에 따른 자본효율성 저하와 긴축정책에 따른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단위자본비용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그후 안정세를 회복하였으며 日本의 경우 꾸준한 합리화투자를 통하여 설비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감으로써 우리나라나 臺灣에 비해 단위자본비용이 낮은 상승세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 대한 반성과 함께 중화학투자 조정등 산업구조 합리화에 힘쓴 결과 자본생산성이 점차 개선된데 힘입어 연평균 단위자본비용 상승률이 6.9%로 1970년대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으며 특히 1986~88년중의 호황기에는 주식시장 활황 등으로 기업자금사정이 호전되고 자본조달코스트도 하락함에 따라 자본단위당 비용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단위자본비용 상승률이 연평균 1.5%로 낮아졌다. 그러나 日本의 단위자

본비용상승이 연평균 1% 미만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대만의 경우 금리의 큰 폭 하락에 따라 단위자본비용이 감소로 전환된 데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89년중에는 지난 3년간의 경기호황기중 시설의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가 크게 증가한 이후 급속한 경기후퇴를 맞이함으로써 자본생산성이 저하되었으나 기업의 차입금의존도와 자본조달비용이 더욱 낮아져 자본단위당 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단위자본비용은 전년에 비해 0.7% 상승하는데 그쳤다.

#### 다. 원자재비용

원자재비용은 각국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총생산비용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생산기술의 발달 및 생산공정의 합리화 정도등에 따라 원자재이용의 효율성면에서 국가간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원자재비용이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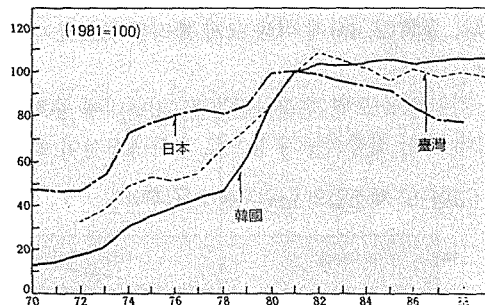
<표-3>

제조업의 단위원자재비용 추이(연평균 상승률)

(단위 : %)

	1971~89	71~80	71~75	76~80	81~85	86~88	89
韓 國	11.8	21.0	22.9	19.0	4.3	0.3	-0.5
日 本	2.8	7.8	10.3	5.3	-1.7	-5.4	..
臺 灣	6.5	12.2	16.6	9.6	2.7	1.2	-1.7

<그림-6> 제조업의 단위원자재비용 추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日本 臺灣은 모두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원유등 대부분의 원료를 해외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조업부문의 단위생산물당 원자재비용(Unit Material Costs)은 유가등 국제원자재 가격과 환율의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의 정도는 각국의 기술수준 및 기업의 대

응능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71~89년중 단위원자재비용이 연평균 11.8% 상승하여 日本(2.8%), 臺灣(6.5%)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원자재이용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단위원자재비용은 유가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높은 상승과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연평균 21.0%의 높은 상승을 지속한데 반해 日本은 이 기간중 연평균 7.8%, 臺灣은 12.2%로 단위원자재비용 상승률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았다. 특히 日本의 경우 1970년대 중반 이후 에너지 및 원자재 절약을 위한 합리화투자에 노력함으로써 단위원자재비용 상승세가 연평균 5.3%로 크게 낮아졌으며 臺灣의 경우도 1970년대 후반 이후 단위원자재비용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80년대 들어서는 우리나라와 臺灣의 경우 원유가격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데다 환율도 1986년 이후 하락함으로써 단위원자재비용 상승세가 뚜렷이 안정되고 있으나 日本의 경우 단위원자재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원자재이용의 효율성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臺灣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의 단위원자재비용 상승률이 日本에 비해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日本에 비해 에너지 및 원재료 절약구조로의 이행이 미흡하였던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라. 단위생산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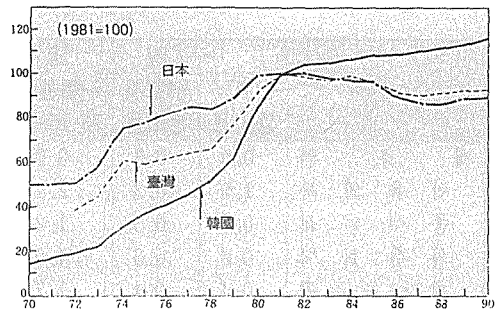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단위노동비용 단위자본비용 및 단위원자재비용을 종합한 단위생산비용(Unit Production Costs)의 변동추이를 보면 1971~90년중 우리나라 단위생산비용은 연평균 10.9% 증가하여 日本(3.0%), 臺灣(5.0%)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간별로 보면 1970년대 전반기까지는 3개국의 단위생산비용이 모두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었고 후반기에 들어 점차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1980년대 들어서는 日本 臺灣의 단위생산비용이 각각 초반 및 중반이후 감소로 돌아선 반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비해 현저히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단위생산비용의 변동을 요인별로 나누어

보면 3개국 모두 주로 원자재비용의 움직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원자재비용이 총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요소비용에 비해 크기 때문이며 국가간 단위원자재비용 상승률의 격차는 각국의 산업구조 생산기술수준 등의 차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日本 및 臺灣과의 연평균 단위생산비용의 상승률 차이중 60% 이상이 단위원자재비용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986년 이후에는 日本에 대해서 단위원자재비용에 의한 단위생산비용 차이가 더욱 현저해지고 있는 가운데 단위노동비용 차이도 확대되고 있으며 臺灣에 대해서는 단위원자재비용보다는 단위자본비용의 열세로 단위생산비용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臺灣에 비해 장치산업의 비중이 높아 자본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7〉 제조업의 단위생산비용 추이



〈표-4〉 제조업 단위생산비용의 요인별 상승기여도(연평균) (단위 : %, %포인트)

		1971~89	71~80	71~75	76~80	81~85	86~88	89~90
韓國	단위노동비용	1.3	1.8	1.3	2.0	0.4	0.4	..
	단위자본비용	2.8	4.2	4.9	3.7	1.7	0.4	..
	단위원자재비용	7.2	13.3	14.2	12.6	2.9	0.2	..
	단위생산비용	11.4(10.9)	19.3	20.3	18.3	5.0	0.9	1.9
日本	단위노동비용	0.4	0.7	1.6	0.1	0.0	-0.2	..
	단위자본비용	1.0	1.4	1.2	1.4	0.2	0.3	..
	단위원자재비용	1.7	4.9	6.4	3.5	-1.1	-3.3	..
	단위생산비용	3.1(3.0)	7.1	9.2	4.9	-0.8	-3.2	2.2
臺灣	단위노동비용	0.9	1.0	1.0	0.9	0.7	0.2	..
	단위자본비용	0.8	4.5	6.2	3.6	-1.4	-2.8	..
	단위원자재비용	3.5	6.0	8.0	4.8	1.4	0.7	..
	단위생산비용	5.2(5.0)	11.5	15.2	9.3	0.7	-1.9	1.2

<표-5>

韓國과 日本, 臺灣의 단위생산비용 격차의 요인별 기여도(연평균)

(단위 : %)

		1971~89	71~80	71~75	76~80	81~85	86~88
韓國-日本	단위노동비용	10.8	8.7	-2.8	14.2	6.8	13.2
	단위자본비용	22.4	22.5	32.9	17.4	25.0	3.4
	단위원자재비용	66.8	68.7	69.8	68.4	68.2	83.4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韓國-臺灣	단위노동비용	6.5	10.5	5.1	11.8	-6.5	4.4
	단위자본비용	32.2	-4.8	-26.1	1.6	71.3	114.0
	단위원자재비용	61.3	94.2	121.0	86.6	35.2	-18.4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편 1986년 이후의 단위생산비용 추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日本에 비하여 대부분의 업종에서 단위생산비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특히 섬유 의복 석유화학 전기전자 및 운수장비 등의 단위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주로 원자재 이용의 효율성 차이에 따른 단위원자재비용 격차에 기인하는 것이나 섬유의복 전기전자 등 노동집

약도가 높은 부문에서는 최근의 고임금 추세를 반영하여 단위노동비용도 점차 불리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밀기기 등의 경우에는 臺灣에 비해서도 최근 단위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최근(1986~89년) 주요업종 단위생산비용의 요인별 상승기여도(연평균)

(단위 : %, %포인트)

	韓 國				日 本				臺 灣
	단위노동비용	단위자본비용	단위원자재비용	단위생산비용	단위노동비용	단위자본비용	단위원자재비용	단위생산비용	단위생산비용
제조업	0.6	0.3	0.0	1.0	-0.2	0.3	-3.3	-3.2	-1.0
섬유의복	1.0	0.3	2.4	3.7	-0.1	-0.0	-2.3	-2.4	1.9
종이 인쇄	0.7	0.3	1.2	2.3	-0.2	0.6	-1.8	-1.4	3.0
석유화학	0.6	0.3	-4.0	-3.1	-0.0	0.9	-8.7	-7.8	-5.1
제1차 금속	0.4	0.4	1.7	2.5	-0.0	0.9	-4.2	-3.2	2.1
조립금속·기계	0.4	0.1	0.9	1.4	-0.5	-0.9	-2.2	-3.5	-0.2
조립금속	0.3	1.1	2.0	3.4	-0.3	0.2	-0.8	-0.9	2.2
일반기계	0.2	0.4	0.6	1.2	-0.3	-0.8	-0.9	-1.9	1.6
전기전자	0.4	0.0	0.5	0.9	-0.8	-1.6	-3.7	-6.1	-2.1
운수장비	0.5	-0.5	1.4	1.4	-0.4	-0.6	-1.7	-2.7	1.9
정밀기기	0.5	0.5	0.8	1.8	0.2	-0.8	-0.6	-1.2	-2.5

## 2. 환율변동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와 日本 臺灣의 제조업 단위생산비용 변화에 의한 가격경쟁력 추이 비교는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은 國際通貨表示의 제품가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위생산비용에 관한 제지표를 공통통화기준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각국의 환율

변동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 각국의 환율변동폭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국제시장에서 제품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각국 산업의 가격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율변동을 반영한 美 달러화 기준 단위생산비용을 자국통화기준 단위생산비용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71~90년중 자국통화기준으로 계측한 결과는 3개국중 日本의 단

〈표-7〉

환율 및 단위생산비용의 변동 추이(연평균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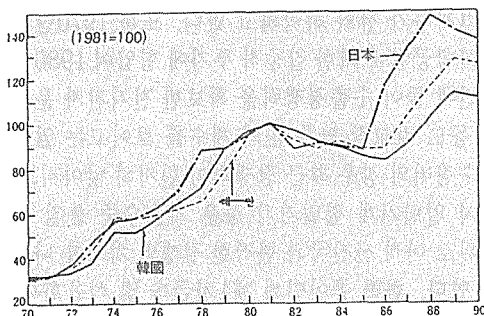
(단위 : %)

	대미달러절상율			단위 생산 비용					
	한국	일본	대만	자국통화기준			美달러화기준		
				한국	일본	대만	한국	일본	대만
1971~80	-6.5	4.7	1.3	19.3	7.1	11.5	11.6	12.1	13.0
1971~75	-8.5	3.9	1.8	20.3	9.2	15.2	10.1	13.5	17.2
1976~80	-4.4	5.5	1.1	18.3	4.9	9.3	13.1	10.7	10.5
1981~85	-6.9	-1.0	-2.0	5.0	-0.8	0.7	-2.3	-1.8	-1.3
1986~88	6.0	23.0	11.7	0.9	-3.2	-1.9	6.9	19.0	9.6
1989~90	1.7	-5.9	3.1	1.9	2.2	1.2	3.6	-3.9	4.3
1971~90	-4.0	4.7	2.2	10.9	3.0	5.0	6.4	7.8	7.3

위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가격경쟁력이 가장 유리하고 한국의 단위생산비용은 臺灣보다도 높게 상승하여 가격경쟁력이 가장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美달러화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는 3개국의 단위생산비용이 모두 연평균 6~8%의 상승을 보여 가격경쟁력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71~90년중 원화환율이 연평균 4.0% 절하된데 반해 엔화 및 NT 달러는 각각 4.7% 및 2.2% 절상되었기 때문이다.

기간별로 보면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전반까지는 우리나라 日本 臺灣의 美달러화기준 단위생산비용 상승률이 거의 비슷하여 자국통화기준의 경우와는 달리 3개국의 가격경쟁력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1985년의 플라자합의 이후에는 3개국통화가 모두 절상됨으로써 美달러화기준 단위생산비용이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日本의 경우 엔화의 절상이 급속히 이루어진 1988년까지 美달러화기준 단위생산비용이 연평균 19.0%씩 급증함으로써 우리나라와 臺灣에 대해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따라서 1986~88년중 우리나라와 臺灣이 세

〈그림-8〉 제조업의 단위생산비용 추이(美달러화기준)



게시장에 대한 수출의 급신장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日本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에 힘입은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1989년 이후에는 日本 엔화가 약세로 전환되고 원화 및 NT 달러는 절상 추세를 지속함으로써 美달러화로 평가한 우리나라와 臺灣의 가격경쟁력이 日本에 비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국제경쟁력계수의 변화

#### 가. 공산품 수출입 추이

먼저 우리나라 공산품의 수출입(통관기준) 추이를 살펴보면, 수출은 1970년대 이후 1988년까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육성되어 온 중화학공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등장하면서 높은 수출신장을 달성한데 힘입은 것이며 특히 1986~88년중에는 3저현상에 따른 해외수요 급증으로 경공업제품의 수출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9년 이후에는 임금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이 급속히 둔화되었다. 한편 수입은 1980년대 전반까지는 자본재와 중간재를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제품 수입이, 1986년 이후에는 소비를 비롯한 내수의 높은 증가에 따른 수입증가 등의 영향으로 식료 및 소비재 등의 경공업제품 수입이 각각 크게 늘어남으로써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日本의 경우 수출은 플라자합의 이후 시장다변화 및 생산기반 해외이전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자본재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최근에는 증가세가



<표-8>

韓國 日本 臺灣의 공산품 수출입 추이(연평균 증가율)

(단위 : %)

		1981~90	81~85	86~88	89~90
韓 國	수출	14.5	11.9	27.0	3.8
	경공업	11.5	5.7	28.9	2.5
	중화학공업	17.3	17.7	25.7	4.7
	수입	16.0	10.5	25.3	16.4
	경공업	14.1	3.2	31.4	18.5
	중화학공업	16.5	12.3	24.1	16.0
日 本	수출	8.2	6.2	14.6	3.9
	수입	13.2	2.3	33.0	14.3
臺 灣	수출	12.5	9.3	25.5	2.6
	수입	12.7	1.3	46.7	-1.0

둔화되고 있으며 수입은 1986년 이후의 급속한 엔화강세와 내수확대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臺灣은 NT 달러의 지속적 절상으로 1989년 이후 수출이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도 소폭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나. 국제경쟁력계수의 변화

국제경쟁력계수는 순수출(수출-수입)을 생산액으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한 것으로 정의되는데 가격·비가격경쟁력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성과분석지표로서 특정국가내에서의 산업간 비교우위평가와 특정산업의 국가간 경쟁력 비교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최종제품 뿐만 아니라 반제품 부품 등 중간제품을 포함한 당해 산업 전체의 수출입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계수가 높은 正의 값을 나타낼수록 당해 산업은 다른 나라의 같은 산업에 비하여 수출경쟁력 및 수입저항력을 종합한 국제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日本 臺灣의 1980년 이후 국제경쟁력계수 추이를 살펴보면 3개국 모두 1980년대 중반 또는 후반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그 이후 하락세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美國 등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 둔화에 따른 수출부진,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 동남아 및 中國 후발개도국의 부상에 따른 시장잠식 등 제반 경제환경 변화로 세 나라 모두 최근 국제경쟁력이 점차 약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계수 추이를 보면 일부 중화학공업제품이 1970년대의 수입대체기를 거쳐 1980년대에 수출주종품목으로 전환된데다 물가안정과 3저현상 등에 따른 경쟁력 향상에 힘입어 1988년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1989년 이후 위에서 열거한 요인 외에도 높은 임금인상과 내수주도에 의한 경제성장 지속으로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섬유·의복·조립금속 등은 1960년대 이래 수출주도산업으로 육성되어 온 결과 비교적 높은 국제경쟁력계수를 나타내어 다른 산업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수출여건의 악화 등에 따라 국제경쟁력계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 또한 1970년대 말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에 힘입어 1980년대 중반에 들어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전기전자 운수장비 등도 비교적 높은 正의 계수를 보이고는 있으나 운수장비의 경우 최근 경쟁력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으며 일반기계 정밀기기 등은 기술수준 품질 등의 열위로 아직 선진국과 현격한 경쟁력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종이인쇄 제1차금속 및 석유화학 등

은 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1980년 이후 국제 경쟁력계수가 負의 값을 보여 왔으며 1989년 이후 더욱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를 日本 臺灣과 비교하여 보면 日本의 경우 원재료 및 중간제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종이인쇄 석유화학에서 負의 계수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기계 전

기전자 수송기계 정밀기계등 기계공업부문에 서 수출액이 국내생산의 15~30%에 달하여 높은 국제 경쟁력을 반영하고 있다. 臺灣의 경우 섬유와 금속제품 전기전자 등에서 높은 국제 경쟁력 계수를 보이고 있으나 종이인쇄 제1차 금속 일반기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으로 분

〈표-9〉 韓國 日本 臺灣의 업종별 국제경쟁력계수 추이 (연평균)

		1980~90	80~85	86~88	89~90
韓	제조업	6.5	6.8	8.6	3.8
	섬유 의복	36.2	36.5	36.2	35.6
	종이 인쇄	-9.2	-8.8	-8.7	-10.2
	석유 화학	-4.7	-3.8	-2.2	-9.4
	비금속 광물	3.3	6.6	2.7	-0.4
	제1차 금속	-3.8	0.9	-5.7	-8.3
	조립 금속 기계	4.2	3.5	6.7	1.9
	조립 금속	34.9	53.9	29.3	24.6
	일반기계	-74.0	-97.1	-66.9	-66.6
國	전자 장비	15.6	5.8	18.8	20.3
	운수 장비	14.7	19.6	17.4	8.1
	정밀 기계	-39.9	-25.5	-31.0	-64.1
	제조업	7.6	8.5	7.0	5.3
	섬유 의복	3.0	6.1	-0.6	-5.4
	종이 인쇄	-1.7	-1.4	-1.8	-3.1
	석유 화학	-2.9	-3.6	-1.6	-2.2
	비금속 광물	4.4	5.7	2.8	2.0
	제1차 금속	3.1	5.3	-0.1	-1.4
本	조립 금속 기계	20.5	22.4	18.8	16.6
	조립 금속	6.0	8.4	3.3	2.5
	일반기계	16.4	17.4	15.4	14.8
	전자 장비	21.6	23.1	20.3	19.0
	운수 장비	27.7	30.9	25.2	20.4
	정밀 기계	23.5	25.4	22.1	17.5
	제조업	16.5	16.6	18.4	13.8
	섬유 의복	52.7	51.4	54.3	53.2
	종이 인쇄	-9.7	-6.6	-11.6	-12.5
臺	석유 화학	1.8	2.1	3.5	-1.5
	비금속 광물	16.9	16.6	22.2	11.1
	제1차 금속	-47.2	-30.1	-67.5	-52.9
	조립 금속 기계	18.8	14.3	22.8	20.5
	조립 금속	37.2	32.5	44.1	36.7
	일반기계	-39.3	-56.8	-32.9	-21.7
	전자 장비	32.9	29.4	34.1	36.3
	운수 장비	2.7	5.3	7.3	-6.3
	정밀 기계	-4.4	-13.9	5.9	0.0

석되었다.

한편 계수의 절대수준을 보면 최근 우리나라 제조업이 日本 臺灣에 비해 더욱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격경쟁력면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단위생산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해지는 데다 비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상품개발 품질개선 등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IV. 맺는말

우리나라 제조업은 1970년대 이래 단위원자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단위노동비용도 크게 상승하여 1989년 이후 美달러화기준 단위생산비용 상승률이 3.6%에 이르러 日本(-3.9%)을 크게 상회하는 등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향상이나 품질개선 등의 지연으로 비가격경쟁력도 떨어짐으로써 섬유·의복·운수장비·정밀기기 등의 수출이 부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생산비용의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및 중간재 절약형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생산공정의 개선, 생산설비의 자동화를 통하여 인력난을 극복하는 한

편 물가안정 기반의 확립으로 임금인상을 생산성범위내에서 억제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술인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비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상품을 중심으로 한 세계교역 증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노력을 강화하여 신제품개발 및 요소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개발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성, 불확실성 및 장기회임성 등을 고려할때 기업의 노력은 물론이러니와 기초과학 및 첨단 산업기술에 대하여 정부와 産·學·研의 유기적 연계에 의한 공동 기술개발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후발개도국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업종은 제품 고급화·차별화 및 다양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고부가가치상품을 중심으로 복잡화·다양화되어가는 소비수요패턴 변화와 제품수명의 단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국내기업간의 가격·품질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국내외시장에서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 신 간 ■

# The Petroleum Industry in Korea 1991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